

2020년 세계 FDI 유입 동향 분석

- UNCTAD 최근 동향 리포트를 중심으로 -

(2020. 11.)

목 차

I. 개요

II. 주요 지역별 FDI 동향

III. 국가별 투자정책 및 국제 투자협정 동향

IV. 국제 산업생산 동향

해 외 경 제 연 구 소

지 식 경 제 팀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의 “World Investment Report 2020” (’20. 6월) 및 “Investment Trends Monitor”(’20. 10월)를 발췌·요약

I. 개요

1 | 코로나 팬더믹 이후 동향

- 전세계 해외직접투자(이하 “FDI”)은 2015년 최고치인 2조 418억불을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였으며,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축소**
 - 2020년 상반기 전세계 FDI는 전년동기 대비 49% 감소, 2020년 연간 FDI는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1조불 하회 가능*

* 연간 전세계 FDI가 1조불을 하회하는 것은 2005년 이후 최초

전세계 FDI 유입 규모 추이

(억불)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e)
투 자 액	14,039	20,418	19,835	17,005	14,952	15,399	9,200~10,800

- 세계 정치·경제적 긴장으로 인한 기존의 비관적 거시경제 전망에 더하여, 외생변수로서 **코로나-19 사태가 FDI 변동성을 심화**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수단**이 향후 전망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며, 기업·가계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의 중요성 부각

2017~2020년 지역별 FDI 유입 추이

(억불)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e)
선진국	9,500	7,610	8,000	4,800~6,000
유럽	5,700	3,640	4,290	2,400~3,000
북미	3,040	2,970	2,970	1,900~2,400
개발도상국	7,010	6,990	6,850	3,800~4,800
아시아	5,020	4,990	4,740	2,600~3,300
중남미	1,560	1,490	1,640	700~1,000
아프리카	420	510	450	250~350
체제전환국	500	350	550	300~400
전 세계	17,005	14,952	15,399	9,200~10,800

- 그린필드 투자 및 국가간 M&A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히 위축되어, 2020년 상반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각각 37%, 15% 감소
 - 다국적 기업들은 2020년 수익전망을 약 36% 하향 조정
- 2020년 상반기 전세계 FDI는 축소 국면이나, 그 양상은 국가별로 상이
 - (선진국¹⁾) 2020년 상반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75% 감소했으며, 특히 유럽지역이 크게 감소. 유럽지역은 경제통합 및 무역시장 단일화에 따라, 경제충격이 쉽게 타국으로 전이되기 때문
 - (개발도상국²⁾) 기본적으로 경제구조가 취약하고, 위험분산도가 낮으나, 중국에 대한 투자 지속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6% 감소로 선방
 - (체제전환국³⁾) CIS 경제권의 중심국가인 러시아의 급격한 경기위축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81% 감소한 것으로 추정

2020년 상반기 지역별 FDI 유입 실적

(억불, %)

구분	2019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선진국	3,970	980	△75
유럽	2,030	△70	..
북미	1,560	680	△56
개발도상국	3,520	2,960	△16
아시아	2,460	2,170	△12
중남미	830	620	△25
아프리카	230	160	△28
체제전환국	290	50	△81
전세계	7,770	3,990	△49

1) UNCTAD에서는 EU 28개국, 비EU유럽 3개국(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캐나다, 호주, 버뮤다, 이스라엘, 일본 및 뉴질랜드 분류
 2)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 포함
 3) 세르비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등 17개국

2

향후 FDI 전망

- 코로나 팬더믹 충격에 따른 경기침체 및 회복이 향후 FDI 유입에 영향을 미칠 전망
 - 2021년에도 5~10% 추가감소한 후, 2022년부터 제한적 반등 가능
 - 낙관적 시나리오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이 흡수될 경우 2022년부터 U자형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비관적 시나리오는 2022년 이후에도 2019년 수준을 하회하는 L자형 장기 침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요-공급 충격이 투자매커니즘에 연쇄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세계열별 코로나 팬더믹이 투자 및 FDI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시 기	투 자	F D I
즉 시	~2020년말	사회·경제적 봉쇄(Lockdown)에 따른 투자 중단 및 재투자 수익률 저하	기존 프로젝트 수행 지연
단 기	~2021년말	신규 규제가 투자활동 저해	국가간 M&A 축소
중 기	~2022년말	전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위축	프로젝트 보류, 신규 투자 축소
장 기	~2030년말	공급사슬의 회복 및 주요 공급활동의 자립도 제고	지분매각, 리쇼어링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FDI 위축에도 불구하고, FDI는 개발도상국의 주요한 외자 유치수단이며, 감소세 지속시 경제적 타격 우려

III. 주요 지역별 FDI 동향

1 개발도상국(Developing Economies)

1. 아시아 개발도상국(Developing Asia)

- (2019년) FDI 유입은 전년 대비 5% 감소한 약 4,740억불을 시현하였으나, 전세계 FDI의 30% 수준을 차지하는 최대 투자 지역 위상을 유지
 - 홍콩 및 한국에 대한 투자는 감소한 반면,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및 베트남 앞 투자는 증가
 - 동 지역의 투자유출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약 3,280억불이며, 이는 원자재 가격하락,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의 투자 유출 규제 등에 기인
- (2020년) 제조업 및 서비스업 투자유입 감소로 연간 FDI 유입은 전년 대비 30~45% 감소 예상
 - 상반기 FDI는 전년동기 대비 12% 감소한 약 2,170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개발도상국 중 가장 낮은 감소세
 - * 우리나라 FDI 유입규모는 그린필드 프로젝트 및 국가간 M&A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30억불 기록
- (동향)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중국 IT 및 전자상거래 기업 위주로 M&A 거래가 84% 증가하는 등 일부 투자활동이 견조하게 지속되고 있고, 각국 정부의 투자촉진정책도 기존 프로젝트 이행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2. 중남미(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2019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앞 투자 증가에 힘입어 FDI 유입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1,640억불을 시현

- (2020년) 이미 침체되었던 중남미 경기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더욱 위축되었으며, 연간 FDI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
 - 상반기 FDI 유입은 전년동기 대비 25% 감소한 약 620억불 기록, 원자재 가격하락 및 수요감소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그 밖에 주요 산업인 관광업, 제조업(자동차), 섬유업 등도 불황 지속
- (동향) 향후 자산매각 재개 및 신규 인프라투자 확대시 투자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중미 및 카리브해 국가들의 의료장비(보호마스크) 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 확대 중

3. 아프리카(Africa)

- (2019년) FDI 유입은 전년 대비 10% 감소한 약 450억불 기록
 - 남아공 및 나이지리아는 감소, 이집트는 증가 시현
-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동 지역 FDI는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연간 FDI 유입은 전년 대비 25~40% 감소 예상
 - 상반기 FDI 유입은 전년동기 대비 28% 감소한 160억불을 기록
 - 아프리카 FDI의 약 40%가 자원개발 관련 투자인 바, 석유 공급과잉에 따른 저유가 지속은 FDI 감소 요인
 - 기타 원자재 가격 하락도 동 지역 앞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요소
- (동향) 글로벌 성장세 둔화 및 원자재 수요 감소 등은 투자 둔화 요인이나, 장기적으로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 협정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greement) 체결시 투자촉진 가능

2 선진국(Developed Economies)

- (2019년) 글로벌 무역갈등, 브렉시트 현실화 등으로 지난 3년간 위축되었던 FDI가 약 5% 증가, 특히 유럽지역 앞 FDI가 18% 증가
- (2020년) 연간 FDI 유입은 전년 대비 25~40% 감소 예상
 - 상반기 FDI 유입은 980억불로, 전년동기 1/4 수준에 불과
 - 특히, 유럽지역은 순투자 기준 최초로 투자유출로 전환(△70억불)
- (동향) 각국의 코로나-19 사태 대응, 전략산업 투자인허가 조치, 주요 산업의 공급망 회복 등이 장기적 FDI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선진국 FDI의 재투자수익도 감소

3 체제전환국(Transition Economies)

- (2019년) 러시아, 우즈벡,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FDI 유입 증가로 전년 대비 59% 증가한 약 550억불 기록
-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투자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연간 FDI는 전년 대비 38% 감소 예상
- (동향) 수요 위축으로 시장진입을 위한 투자가 감소하고, 저유가에 따라 자원개발 투자도 감소
 - 동남부 유럽 및 몰도바 등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한 영향 심화

4 기타 지역

1. 후진국¹⁾(Least Developed Countries)

- 보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하여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급급, 신규 투자 여력이 부족한 바, 향후 FDI 전망도 매우 부정적
 - 후진국 경제구조는 자원개발 및 관광업에 의존적이므로, 저유가, 원자재 가격 하락, 이동제한 등의 영향이 확대됨

2. 내륙국²⁾(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 코로나-19 사태로 해상무역이 불가능한 내륙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증폭되어 최소 향후 2년간 FDI 유입은 급격히 감소 전망
 - 국경봉쇄로 인해 타국과의 무역이 심각히 제한되어 수출도 급감할 전망

< 참고 : 2020년 1~3분기 지역별·투자형태별 투자 증감률 >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국가간 M&A	그린필드 투자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선진국	진	△21	△17	△19
유럽	유	△5	△17	△17
북미	북	△32	△25	△34
개발도상국	개	12	△49	△25
아프리카	아	△44	△66	△49
중남미	중	△73	△53	△34
아시아	아	60	△42	8
체제전환국	체	84	△58	△46
전세계	전	△15	△37	△25

1) 앙골라,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콩고, 에티오피아, 미얀마, 르완다 등

2)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보츠와나, 몰도바, 네팔, 투르크메니스탄 등

III. 국가별 투자정책 및 국제 투자협정 동향

1 | 코로나 팬더믹 대응을 위한 투자정책 수립·운영

- 다수의 국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및 사회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투자활동 및 주요산업을 지원하는 투자정책을 수립·운영 중
 - 주요 산업의 경우 FDI 유입을 억제하고, 기타 산업의 경우 공급망 재건을 위해 투자유입 촉진정책 운용
 - 한편, 비대면 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온라인 투자신청·인허가 시스템 도입 확대

코로나 팬더믹 이후 투자정책 주요 트렌드

① 주요 산업 보호 투자정책 강화

②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쟁 심화

③ 온라인 투자인허가 확대

④ 기존 국제투자협정 개정 가속화

2 | 주요 투자정책 동향

- 2019년 중 54개국이 FDI 관련 107개의 다양한 신규 정책 도입
 - 이 중 66개의 정책은 투자자유화·촉진정책과 관련되고, 21개는 규제정책, 나머지 20개는 중립적 정책
 - 개발도상국의 투자정책은 투자자유화·촉진 정책 지향
 - (중국) FDI 정책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보호 강화(자국기업과 외국기업 동일 대우), 국가간 무역·투자시 외환거래 자유화

- (러시아) 투자보호·촉진을 위한 협정체결을 진행 중이며, 수입관세 인하, 토지사용규제 완화 등을 추진
- (우즈벡)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법령 도입, 대통령 직속 투자자문기구 설치, 국가-투자자간 분쟁해결 절차 마련

3 국제 투자협정 동향

- 2019년 중 종료협정 수가 신규협정 수를 초과하여, 2019년말 기준 총 협정 수는 3,284개로 소폭 감소
 - 한편, 호주, 브라질, 아랍에미리트는 각각 3개의 신규 국제투자 협정을 체결하며 활발한 양상
- 2019~2020년 유럽 및 아프리카에서 국제 투자협정 관련 이슈
 - 2020년 1월말 영국의 EU 탈퇴가 공식화됨에 따라, 영국은 현행 무역협정의 효력을 유지하려 노력
 - 2020년 2월부터 연말까지 11개월의 이행기간 동안 영국은 제3국과 협의하여 무역협정 체결 노력
 -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CFTA) 1단계(현재 완료추진 단계)는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촉진, 분쟁해결 등을 골자로 하며, 2단계는 투자, 경쟁, 지적재산권에 관한 보충 협약으로 2021년 채택 예정

IV. 국제 산업생산 동향

1 국제 산업생산의 전환기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생산시스템 재편 중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여 국제 산업생산 시스템에서 지속가능발전(Sustainability) 이슈 부상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각국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 봉쇄령 등 엄격한 통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전례없는 생산중단, 공급망(Global Value Chain) 붕괴, 수요 급락 등을 야기
- 코로나-19 사태가 국제 산업생산의 유일한 변화요인(Game Changer)은 아니나, 아래의 3대 트렌드와 함께 국제 산업생산의 전환기 도래
 - (기술발전 및 4차 산업혁명) 다국적기업은 글로벌 공급망에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국제 생산네트워크에 광범위한 변화 도래
 -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변화) 각국의 무역투자 정책은 기존의 다자협력체제에서 벗어나, 지역 및 양자간 협력 확대로 변화
 - 국가간 무역경쟁이 복잡·다양해지고, 정부의 규제·개입 강화
 - (지속가능발전) 다국적기업은 기후변화대응 등 다방면에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FDI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참고 : 다국적기업의 장단기 사업전략 재편 >

- (단기 영향) 재투자수익 감소, 투자실행 보류 등
- (장기 목표) 탄력적 공급망 재구축 및 지역적 자립성 강화 추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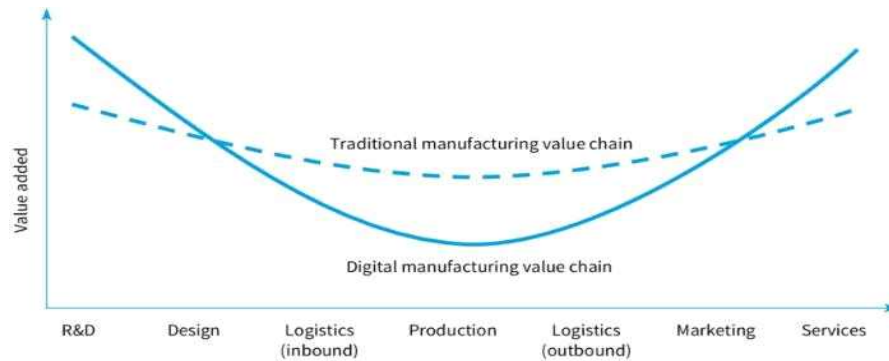
2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생산 변화

- ①로봇으로 구현된 자동화, ②AI를 활용한 공급망 디지털화, ③3D프린팅 3대 핵심기술이 향후 국제 산업생산을 결정 예상
 - 각 기술은 그 자체로 스마일커브를 평탄화(Flatten) 또는 곡선화(Bend)

< 참고 : 스마일 커브(Smile Curve)의 개념 및 시사점 >

- (개념) 제품의 R&D에서 제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의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곡선으로, 최고의 부가가치는 R&D, 디자인, 마케팅 및 서비스에서 나오고 그 중간단계인 제조의 부가가치는 가장 낮다는 개념
 - * 단계별로 부가가치의 정도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웃는 모양을 나타내는 곡선



- (자동화) 과거 다국적기업은 저임금 활용을 위해 생산공장을 개발도상국에 설립하였고, 이러한 생산방식은 글로벌 공급망 패턴을 형성
 - 최근 저렴한 산업용 로봇사용 증가로 개발도상국이 저임금 제조업 중심지로서의 투자유인을 상실하고 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의 노동비용 상승 및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와 함께 향후 제조업의 본국 회귀(리쇼어링)의 유발 가능
- (공급망 디지털화) 디지털기술의 적용은 생산공정 통합, 거래비용 감소, 복잡한 가치사슬의 통합 등 용이 가능
 - IoT를 활용하여 생산량 계획 및 공정검수를 향상시키고, 빅데이터를 통해 생산공정 및 최종제품품질을 높이며,

AI 기술은 생산관리기능 강화 및 예측기술 발전에 기여

- (3D프린팅) 일부 산업은 대규모·복합적 생산공정에서 소규모·지역적 생산공정으로 변화 가능

3 | 향후 산업생산 전망

- 국제 산업생산은 기술발전, 각국의 정책, 지속가능성 동향, 코로나 팬더믹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향후 급격한 변화 예상
 - (리쇼어링) 과거 분업화와 비용절감을 위해 해외로 이전했던 생산설비가 생산공정을 단순화하여 국내 또는 인근 국가로 이전
 - 특히 자본집약적 산업의 경우, 직접적 관리 강화를 위해 리쇼어링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
 - (다각화) 리쇼어링의 대안으로, 공급망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지역 및 공급자를 확대
 - 복잡해진 글로벌 공급망을 조직화·통제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활용이 필수적
 - (지역화) 생산 표준모델을 적용하여 지역단위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공급망의 양극단을 지리적으로 가깝게 축소
 - (복제화) 소비자 측면에서 분산생산의 일종으로, 3D프린팅을 활용하여 모든 기업(또는 모든 가정)이 필요한 것을 독립적으로 생산하는 방식

확인

팀장 석진오(3779-5710)
greenbard@koreaexim.go.kr

작성

책임조사역 김상곤(3779-6667)
sgkim@koreaexim.go.kr

<참고자료 1>

2017~2019년 각국 FDI 유입 추이

(백만불)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유입액	순위	유입액	순위	유입액	순위
미	국	277,258	1	253,561	1	246,215	1
중	국	136,315	2	138,305	2	141,225	2
싱가포르		83,604	6	79,738	5	92,081	3
네덜란드		60,478	8	114,306	3	84,216	4
아일랜드		52,835	11	△28,089	-	78,234	5
브라질		66,585	7	59,802	9	71,989	6
홍콩		110,685	3	104,246	4	68,379	7
영국		101,241	5	65,300	8	59,137	8
버지니아섬		57,574	10	58,777	10	57,997	9
인도		39,904	13	42,156	13	50,553	10
캐나다		26,522	16	43,459	12	50,332	11
독일		60,354	9	73,570	6	36,359	12
호주		45,303	12	68,048	7	36,156	13
케이만섬		22,938	20	16,771	20	34,690	14
프랑스		24,833	18	38,185	14	33,965	15
멕시코		34,165	15	34,746	15	32,921	16
러시아		25,954	17	13,228	23	31,735	17
이탈리아		24,047	19	32,886	16	26,569	18
사이프러스		15,360	24	6,469	40	24,248	19
인도네시아		20,579	21	20,563	18	23,429	20
스웨덴		14,249	26	3,857	51	20,568	21
이스라엘		18,169	22	20,789	17	18,224	22
베트남		14,100	27	15,500	21	16,120	23
일본		10,977	31	9,858	31	14,552	24
콜롬비아		13,837	28	11,535	27	14,493	25
아랍에미리트		10,354	32	10,385	30	13,787	26
폴란드		9,179	35	13,947	22	13,220	27
스페인		38,807	14	45,010	11	12,406	28
칠레		6,519	41	7,021	35	11,437	29
대한민국		17,913	23	12,183	25	10,566	30 ^{주)}

주) 버지니아섬, 케이만섬 등 편의치적국 제외시 2019년 기준 전세계 27위 FDI 유입국

<참고자료 2>

2017~2019년 각국 FDI 유출 추이

(백만불)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유출액	순위	유출액	순위	유출액	순위
일	본	164,683	2	143,161	1	226,648	1
미	국	300,378	1	△90,623	-	124,899	2
네	덜	46,902	11	△18,843	-	124,652	3
중	국	158,290	3	143,040	2	117,120	4
독	일	104,087	5	78,813	5	98,700	5
캐	나	78,348	7	49,879	7	76,602	6
홍	콩	86,704	6	82,201	4	59,279	7
버	지	52,919	8	39,463	9	41,014	8
프	랑	35,985	12	105,636	3	38,663	9
대	한	34,069	15	38,220	10	35,531	10
바	레	229	64	111	75	35,506	11
싱	가	48,830	10	29,761	13	33,283	12
영	국	117,547	4	41,425	8	31,480	13
이	탈	24,531	19	32,692	12	24,934	14
스	페	52,349	9	27,074	14	24,135	15
스	웨	25,506	18	16,814	19	22,814	16
러	시	34,153	14	35,820	11	22,530	17
벨	기	33,601	16	26,518	15	19,707	18
아	일	△2,048	-	727	45	18,103	19
덴	마	9,518	27	△1,107	-	16,045	20
아	랍	14,060	22	15,079	20	15,901	21
브	라	19,040	20	△16,336	-	15,515	22
사	이	13,800	23	△2,152	-	14,053	23
사	우	7,280	32	22,987	16	13,185	24
인	도	11,141	25	11,447	23	12,104	25
대	만	11,552	24	18,058	18	11,861	26
태	국	16,963	21	18,442	17	11,847	27
스	위	30,145	17	60,782	6	11,097	28
오	스	10,251	26	5,872	30	10,578	29
멕	시	3,919	37	7,712	27	10,228	30

주) 버지니아섬 등 편의치적국 제외시 2019년 기준 전세계 9위 FDI 유출국